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

**2022년 3월 23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22.(화) 17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22. 3. 22.(화) | 담당부서 | 구주통상과<br>투자유치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서성태 과장(044-203-5660)<br>이승헌 과장(044-203-4080) | 담 당 자 | 권순심 수석전문관(044-203-5661)<br>전종형 사무관(044-203-4089) |

# 산업부 장관, IEA 각료회의 참석 계기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우리 기업 애로점검

**- 발레오社, 미래형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건립에 35백만불 투자 신고 -**
**- 잠재투자가인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-**
**- 최근 러-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프랑스 진출기업 애로사항 점검 -**

□ **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**(이하 산업부) **장관**은 IEA 각료회의(3.23~24, 파리) 참석 계기에 **3.22일**(화) **프랑스 파리**에서 프랑스 주요 자동차 부품 기업 **▲발레오社의 투자 신고식** 개최, 에너지 관리 혁신기업 **▲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, ▲지상사 간담회를 개최**함

**<< 발레오社 투자 유치 >>**

□ 문 장관은 **첨단 미래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**하는 **발레오**(VALEO)社의 **크리스토프 페리엣**(Christophe Périllat) 회장과 만나 **35백만불 투자**를 유치하는 **투자 신고식**을 개최하였는 바, 금번 투자는 **국내 미래차 기술기반 및 공급망 강화**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
< 발레오社 투자 개요 >

◈ 투자신고금액 / 투자기간 / 지역 : 35백만불 / '22~'25 / 대구·경북
◈ 투자분야 : 미래형 자동차 산업 핵심 부품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

○ 同社는 1923년 설립된 **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**으로 전 세계 33개국에 191개의 생산시설과 1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, **한국에서도 '88년 평화발레오**를 시작으로 **경주와 대구** 등에서 **자동차 부품을 생산**하고 있음

○ 금번 투자는 **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스마트 모빌리티** 분야 **연구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립**하기 위한 것으로, **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**과 최고 수준의 **자동차 부품협력사 생태계** 등에 힘입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평가됨

□ 특히, 한국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등 **미래차 산업**에서는 **첨단기술의 개발과 생산의 연계가 필수적**인 바, 금번 투자는 **미래차 산업기반 강화에 기여**할 수 있다는 점에서 **중요한 의미**가 있음

○ 문 장관은 **원활한 투자 이행**이 이루어질 수 있도**록 정부와 지자체, KOTRA**가 원팀이 되어 **적극적으로 지원**하겠다고 밝혔음

**<< 슈나이더 일렉트릭社 방문 >>**

□ 문 장관은 **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혁신기업**인 **슈나이더 일렉트릭**(Schneider Electric)社*의 **로랑 바타유**(Laurent Bataille) 사장과 **산업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**하고, **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**함

* 1836년 설립되어 19세기 철강·조선 분야 제조업체로 시작해 현재는 에너지 관리·자동화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모, 현재 한국(1975년 진출, 8백만불 투자)을 포함 100여국에 진출

○ 특히, 한국 정부가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한 **에너지관리시스템을 산업·건물부문으로 확대**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음과 **한국의 우수한 외국인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조**함

**<< 지상사 간담회 >>**

□ 문 장관은 **프랑스 진출 우리기업들**을 만나 **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기업 활동 애로사항**을 점검하고, **프랑스 진출 확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**함

○ 진출기업들은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정책추진에도 불구, 동유럽에 비해 **세금·노무·행정 부담이 여전히 높은 편**이며, 정부발주 프로젝트 신청시 **언어·정보습득·관행 등에서 불리한 조건**에 놓여있다고 설명

○ 문 장관은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양국 정부간 고위급 면담 등 계기마다 **프랑스 정부에 개선을 요청**하고 주프랑스대사관, KOTRA 등과 함께 **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**해 나갈 것을 약속함

< 지상사 간담회 개요 >

◈ 일시 및 장소 : 3.22(화) 16:00~17:30, 파리 페닌슐라 호텔
◈ 참석자 : 이현 삼성전자 상무, 김주민 대한항공 지점장, 김동식 셀트리온 법인장, 남궁새움 KEB하나은행 지점장, 김중호 한불상의회장, 최송학 OKTA 부회장, 송진성 무역보험공사 지사장, 이제혁 KOTRA 관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권순심 수석전문관(☎ 044-203-5661), 투자유치과 전종형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